

성명서

Statement

현재 청계천은 1만여개의 작은 점포에 약 4만명의 종업원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In Cheonggyecheon, there are approximately 40,000 workers in a total number of 10,000 small shops.

여기에 딸린 식구만 20만명이 되는데 어머니와 아들 딸들이 생계를 기대고 있는 곳입니다.

These 40,000 workers have around 200,000 family members depending on them, whose mothers, sons and daughters rely their lives on.

대한민국 기초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청계천 소상공인은 지난 70여년동안 청계천에 뿌리를 내리며 공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workers of Cheonggyecheon, having been the cornerstone of the early industrial development of Korea, have deeply rooted in Cheonggyecheon as the mecca of manufacturing and supported their lives upon their businesses.

현재 청계천에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제 또래의 50대 60대 종업원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The most of the workers in Cheonggyecheon now are people of my age, 50s to 60s, the heads of the households.

청계천 또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있어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Cheonggyecheon can only function as an organism, a collective body.

한 업소에 모든 제품을 구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a single shop cannot accommodate all the products.

옆에 있는 가게의 물건을 가져와 같이 함께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고사가 됩니다.

Unless a shop sells its neighboring shop's product, we ourselves become dead.

이런 청계천이 "도시 슬럼화"라는 미명 아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heonggyecheon is now disappearing under the name of the "slumification of the city."

30년 이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고 말도 안되는 도시 슬럼화라는 소리로, 서울은 우리 생계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eoul has designated Cheonggyecheon as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for 30 years and now is calling it the slum of the city, trying to kill our very livelihood.

한 지역에서 70여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하나의 공궤?이라는 문화유산을 만들어온 우리 상인들을 대책도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Workers of Cheonggyecheon have stayed and built a cultural heritage of Gong-Gual(a palace without an emperor) for 70 years, but are being pushed onto the streets for building apartments.

서울시는 어떤 근거로 도시 슬럼화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70여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함께 해온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버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ask Seoul, on what base it is accusing Cheonggyecheon of slumification of the city, and how it can abandon the workers who have been working as the foundation of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for 70 years in such a cruel way.

청계천 상인들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청계천 복원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제 장사를 그만두라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orkers of Cheonggyecheon have actively cooperated in restoration of Cheonggyecheon, and yet they are being told to stop their businesses for redevelopment of the area.

청계천에 있는 1만 사업자와 4만명의 종사자 20만명의 가족은 생업을 잃고 거리에 나왔게 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city is undergoing the redevelopment without any measure, pushing 10,000 businessmen, 40,000 workers, and 200,000 family members out of their livelihood into the streets.

이는 우리 상인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It is no different than to tell these workers to die.

박원순 시장은 지금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We urge Park Won-Soon, the mayor of Seoul to visit the tent of the sit-in site, listen to the voices of people, and work on the measures together.

청계천 관수교 앞에서 4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강문원 입니다.

I am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measure committee for protecting the right to live in Cheonggyecheon, Kang Moon Won, going on 42 days of sit-in in front of the Cheonggyecheon Gwansu Bridge.

년 1월 19일 청계천 생존권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강문원

2019. 1. 19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measure committee for the right to live in Cheonggyecheon, Kang Moon Won